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2월 17일 (토) 제 167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안보와 동정” 같이 가야 한다!

CT, “복음주의진영,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개혁요구 풀뿌리 민주운동으로 확산” 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드디어 복음주의자 리더들이 나섰다. 지난주, 미 전역 50개주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리더, 목회자, 학자들이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의 이민 정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성경적 가치이자 미국의 전통적 가치인 “동정(Compassion)”을 유예시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세계구호기구(World Relief)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운동은 워싱턴포스트나 웹사이트(www.worldrelief.org/blog/a-letter-to-president-trump-and-congress)에 실린 전면 공개서한을 통해 1)어렸을 때 미국에 온 70만 명의 30세 미만 불법체류자들(Dreamers,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의 추방이 우려되기에 법적 보호 장치가 요구되며 2)난민 입국 제한 3)이슬람 7개국 입국 제한으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서 박해받다가 중

교적 망명을 신청한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감소되고 있기에 이를 변경해야 하며 4)미국 시민으로서, 영주권 신청을 통해 가족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희망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이번 운동에서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러한 정치적 쟁점에 등장하지 않았던 팀 켈러나 맥스 루카도, 베스 무어와 같은 리더들이 대거 전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Max Lucado, Beth Moore, and Hundreds of Evangelicals Call for Immigration Reform ... Again: A year after their letter opposing the refugee ban, the biggest names in the church are defending Dreamers, persecuted Christians, and more).

먼저 ‘반이민행정명령’을 간략하게 살펴 보자.

취임하자마자 오바마케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겠다고던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하며, 작년 1월 27일 ‘반이민행정명령’을 기습으로 서명, 공포했다. 관련 부처인 미국 국무부와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기에 최측근 외에는 당일 아침까지도 아무도 몰랐던 일이다.

난민과 무슬림 다수 국가 총 7개국(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국적자들의 입국을 즉각 막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전역의 공항을 마비시켰다. 결혼 준비를 하느라 본국에 드레스를 가지러 다녀온 신부가 공항에 억류돼 결혼식에 못 가기도 하고, 남편의 클라이드처럼 투자 이민이 다 결정되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던 외국인 사업가가 공항에 발도 못 디딘 채 돌아가기도 했다. 대량 학살을 피해온 난민들 역시 공항에 억류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해당 부처(Customs & Border Patrol)는 누가, 얼마나 공항에 갇혀 있는지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구촌이 충격에 빠지게 됐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Refugee Ban'-난민수용 120일 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드디어 복음주의자 리더들이 나섰다. 기독교의 가치 중 하나인 ‘동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예명령

기존의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U.S. Refugee Admissions Program, USRAP)을 120일간 유예하되 시리아 난민 수용은 무기한으로 연기한다. 2017년 미국의 난민 수

용 인원을 50,000명으로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미 오바마 정부 때 29,895명을 승인, 20,000명이 대기 중이므로 오바마 정부에서 수용하기로 한 5만명 이외에는 더 이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2018년 세계 최대 위기는 “기상 이변”

뉴스위크, WEF ‘2018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제기 위험성 보도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위험이 큰 요인은 뭘까? 기상이변과 대량살상무기(WMD)다. 지난 1월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연속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핵미사일 등의 WMD 바로 다음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제기됐다(HUMAN EXISTENCE THREATENED MORE BY EXTREME WEATHER, NO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GLOBAL EXPERTS WARN). 그러나 발생 가능성과 실제적인 피해의 측면으로 따지면 세계 전역의 기상이변이 단연 1위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변화가 1위 발생가능성 및 실제적 피해측면 WMD 앞질러

동 보고서 작성자들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가 나온 지난 13년 동안 해가 갈수록 환경 리스크가 더 커졌으며 이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환경 도전 중엔 극단적인 날씨와 기온, 생물다양성의 손실 가속화, 대기·토양·물의 오염,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의 실패, 저탄소 미래로 가는 과정의 전환기 리스크 등이 있다.”

피해를 기준으로 꼽은 글로벌 리스크로 나눠 각각 답변을 요청했다.

그 결과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의 실패는 전부 ‘피해’를 기준으로 꼽은 글로벌 리스크 톱5에 들었다. 그러나 WMD는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꼽은 글로벌 리스크에서 톱10에도 오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지도자 사이의 갈등에 따라 전쟁의 우려가 커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2011년 이래 ‘발생 가능성’과 ‘피해’ 둘 다의 기준에서 글로벌 리스크 톱5에 오른 요인은 환경적 우려다. 특히 기상이변은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에서 2014-16년 3년 연속 2위를 차지했지만 2017년부터는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WORLD MEDIA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inkenhoff Terrace Palisades Park, NY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gospelmail@hotmail.com



시론 최해근 목사

2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인/터/뷰 소망소사이터티 유분자 이사장

16면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 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지구 화약고, 중동은 여전히 불안하다

컨버세이션, UCLA 중동역사전문가, 젤빈 교수의 5개 쟁점 사항들 예측

중동에 관한 예측은 언제나 위험하다. 알 수 없는 변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77년 안와르 알-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예루살렘 방문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의 첫 평화협정으로 이어졌다. 1978-79년의 이란 혁명이나 2010-11년의 아랍 봄기를 내다본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나(James L. Gelvin,

Professor of Modern Middle Eastern History, UCLA)는 지난 30년 동안 중동에 대해 가르치고 글을 썼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올해 중동 지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측해본다(From bad to worse? 5 things 2018 will bring to the Middle East).

1. 시리아 내전은 계속 이어진다

시리아 내전은 8년차에 접어들었다. 올해도 정부군은 반군에 빼앗긴 영토를 계속 탈환해 나갈 것이지만 시리아 전체로 통치권을 확장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여가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반군들은 지난 7년 동안 아사드 정권의 잔혹한 만행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 반군들이 점령 지역을 지켜보고 있다(AP).

감옥에서 양심수를 석방하고 예멘에서 야만적인 전쟁을 끝내야만 자신이 진정한 개혁가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사우디 경제 자유화도 실패할 것이다. 2년 전 그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거기엔 사우디를 14년 안에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

'비전 2030'에 따르면 조금 조금씩과 고용을 통해 사

- ①시리아 내전 ②사우디 개혁 ③IS의 항방 ④이-팔 분쟁 ⑤예멘 전쟁...위기는 계속될 전망

와서 투쟁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전에도 그들은 정부의 사면 제의를 비웃었다. 올해라고 그런 태도가 달라질 리 없다.

둘째, 시리아 정부는 너무 허약하다. 지난 2년 동안 대부분의 영토 탈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군, 또 이란군의 훈련을 받고 지휘를 받는 민병대 등 외부 지원세력에 의해 이뤄졌다. 정부군은 거의 오합지졸인 상황이다.

셋째, 반군 대부분은 하나의 주 안에서 활동한다. 현지 권력 중재자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지난 6년 동안 정부군의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할 어렵게 얻은 자치권을 쉽게 내줄 생각이 없음이 분명하다.

넷째, 시리아 내전은 한쪽에선 반군을 지원하는 서방과 사우디아라비아, 페르시아만 동맹국들, 다른 쪽에선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 등 외부 세력들이 싸우는 대리전이다. 전쟁 피로감과 물자조달 문제로 반군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줄어들겠지만 완전히 중단되진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반군은 단지 지쳤다고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엔과 아랍연맹의 시리아 특사를 지난 라크다르 브라히미의 예언이 적중할 듯하다. 그는 몇 년 전 시리아 내전이 시리아의 '소말리아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말리아처럼 시리아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부가 들어서고 유엔에 영구 대표부를 가질 것이다. 또 여권을 계속 발행하고 출입국을 관리하며 원한다면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다. 그러나 소말리아 정부처럼 시리아 정부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선 안의 영토 전체를 통치할 수 없을 것이다.

2.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은 흐지부질 것이다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 아래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지만 그 개혁은 순전히 걸치레에 불과할 듯하다. 빈 살만 왕세자가 개혁가로 그려지지만 시리아의 바사르 알-아사드 대통령 역시 한

때 개혁가로 선전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빈 살만 왕세자는 계속 가문의 권력을 공고히 다질 것이다. 지금까지 그는 다른 왕자들과 경제 엘리트들을 부패 혐의로 투옥했지만 자신은 프랑스에서 호화 저택을 구입하는 데 3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그는 사우디 지배집단의 또 다른 기동인 성직자의 권력도 축소했다.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고, 영화관 등을 개장하며, 종교 경찰의 체포권을 회수하고, '좀 더 현대적인' 이슬람을 홍보하는 것 등 사우디에서 흔히 말하는 속박의 '완화'는 종교 기득권층의 권력을 줄이고 왕세자 자신의 직계 가족에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9면으로 계속)



시론

목회자 주일을 보내면서



최혜근 목사 (공교메리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매년 2월 첫째 주일을 '목회자 주일'로 정하고 목회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목회자들에게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둘째 주일이 'Clergy Appreciation Day'이지만 우리교회의 실정에 맞추어 2월에 지켜오고 있습니다. 목회자주일이 되면 친교시간에 케익을 자르는 순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설교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목회자들을 돕고 교회와 복음사역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 목회자와 성도자 함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올해저는 베드로전서 5: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 하여금 양무리를 잘 치도록 성도들이 도와줄 수 있는지 몇 가지 권면을 드렸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양무리를 은혜롭게 치도록 하기 위한 첫째 길은 '억지로 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내외적인 압력에 의해 피할 수 없이 하는 섬김이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고 교회 사역자들이 흔히 만나게 되는 부정함 압력 중의 하나는 타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교회 옮기겠습니다'는 이상한 성도들의 경고(?)입니다. 한 교회가 이단에 빠진 경우나 지도자들이 내분 때문에 휩싸여 양들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와 같은 극한 상황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목회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는 경우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부당한 압력을 넣어 목회자를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압력을 목회자에게 드림으로써 목회자가 더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에 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더 많은 성경말씀을 배울 기회나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혹은 더 많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기도리스트를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건강한 압력은 목회자에게 힘과 위로를 남기게 됩니다. 거룩한 압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목회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양무리를 은혜롭게 치도록 하기 위한 둘째 길은 '바르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교회의 미래를 바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을 자주 접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실력이나 노력 혹은 과정 없이 주어지는 직위를 흔히 '낙하산 인사'라고 정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도 이런 낙하산 인사와 같은 흐름이 보여집니다. 정당한 노력과 수고 없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목회자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해서 학위를 받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정직한 헌신과 노력 없이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가짜박사'들이 교회의 강단에도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 왔을까요? 성도들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2세 교회에서는 아직 이런 흐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병적일 만큼 학위에 집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흐름이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짜라도 시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가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 모두 정직하게 다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양무리를 은혜롭게 치도록 하기 위한 세 번째 길은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양의 과정에서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느덧 담임 목회자의 말이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에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보여지곤 합니다. 때론 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지도자의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인해 교회가 사유화되는 경우도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목회자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말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분야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목회자의 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0대 중반의 목회자가 이를 수 있는 신앙의 인격과 70대에 이른 성숙한 성도의 인격은 그 깊이와 폭이 다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삶의 고통과 아픔의 여정을 지나면서도 믿음의 외길을 걸어온 신실한 성도들의 인품은 목회자들에게 아무 말할 수 없는 본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신앙적인 인품을 다듬어 감으로써 성도는 목회자를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명품교회'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명품가방이 있는 것처럼 명품교회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명품화 시키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고 돌아보면 참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명품교회를 만드는 내용물이란 것이 주일예배 때 동원되는 오케스트라나 수 백명에 이르는 성가대의 규모 혹은 파이프 오르간의 유무와 같은 허접한 내용들입니다. 교회를 명품화 시키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복음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존재여부일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런 허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바른 것을 요구하고 훌륭한 신앙인격을 서로에게 나눔으로써 따뜻함과 진실함이 넘쳐나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양지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thechoi82@yahoo.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해 온
미드웨스트대학교
www.midwest.edu

Master and Doctoral Degree Program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 박사학위 과정
MBA - Public Policy/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 Master of Arts Education in Brain / Gifted Education
입학자격: 유아교육, 교육전공 학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 Doctor of Leadership in Brain / Gifted Education Leadership
입학자격: 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육 전공자,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 MBA -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B.A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B.S 항공학과- 조종사과정, 승무원, 운항관리사
MA 음악, 영어교육, 상담, 교육(두뇌개발, 영재 교육)
MBA 리더십학, 공공정책과 행정, 글로벌비즈니스, 경영학, 투자
M.Div 신학
D.Min 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DM 음악박사
DL 리더십학 박사 -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두뇌개발/영재교육리더십

- B.S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s 항공학 학사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여학생 환영
- 항공학과 특징 ●
1)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2) 한국에서 조종 실기는 2-3년 소요되는데 본교에서는 학위과정 중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가능.
3) 비행 훈련을 위한 넓은 활주로와 실기용 비행기 20 여대 준비 되어있다.

Pilot Certificate Programs (국제조종사 FAA 면장과정)
일반 대학졸업자를 위한 조종사 면장과정- 1년 과정(자가용면장, 계기비행면장, 상업용 면장)

● 본교소개 ●
본교는 1986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2주년을 맞는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 여개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교 (USDE) OPE ID: 0352830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입학상담 및 문의처 : 636-327-4645, 070-8690-2662,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안보와 동정” 같이 가야 한다

(1면에서 계속)

현재 진행형인 만큼 난민 수용이 가장 시급한 시리아의 난민 수용을 무기한 유예하는 것 역시 난민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읽힌다. 시리아 난민 이더라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규정이 모호해서 영사관 등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어렵다.

2. 'Muslim Ban'-무슬림 다수국가 90일 비자 금지명령

90일간 무슬림 다수 국가 7개국(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의 비자를 전면 금지한다. 90일 중 30일은 7개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기 위해 어떠한 정보도 받아야 할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60일 동안에는 7개국 정부에 필요 정보를 요청하겠다고 한다. 그 중 협조적인 국가의 국민에게만 비자를 허용하고 아닐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얼핏 테러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미 미국 국무부는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길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및 미국 이민을 승인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각국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7개국에 대해서 비자 금지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작 9.11 테러 주범들의 출신 국가들은 이번 무슬림 비자 금지령에서 제외됐다. 9.11 테러 주범 19명 중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나머지는 UAE, 이집트, 레바논 출신이지만, 그 중 단 한 곳도 이번 비자 금지령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트럼프 본인의 비즈니스가 있는 국가들은 제외, 영종한 이슬람 국가들을 지정, 비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3. 비자 갱신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유예

영주권 등 이미 비자가 있는 경우, 비자를 갱신할 때는 인터뷰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 조항에 따르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인터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 처리가 워낙 느리고 비자 심사 인력이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 비자 등 적시에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개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이를 막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법적 제동을 걸어, 시행을 전격적으로 유예시킨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는 9월 24일, 북한·베네수엘라·차드를 추가하고 수단을 제외한 8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정 조치로 이미 여행 금지에 올랐던 5개국에 대해서는 즉각 연장, 새로 목록에 오른 3개국에 대해서는 10월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또 하와이 주가 소송을 걸었고, 호놀룰루 연방법원은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등 하급 법원에서 잇단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 완전 시행을 허용했다. 하급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백악관은 대법원에 “이번 행정명령은 절차와 본질적 측면 모두 이전의 명령들과 다르다”며 “이번 명령은 종교적 반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외교적 목적에 근거를 뒀다”는 취지를 대법원에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북핵주의 진영은 “국가 안보와 동정과 자비는 미 건국 이래 같이 걸여온 양 기동”이라며, 온전한 이민 정책 구현을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 개정 운동은 단지 북핵주의 진영만의 요구 사항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추방 위기에 직면한 라티노 커뮤니티, 무슬림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그리고 ‘드리머들’이 다니고 있는 미 전역의 대학들 그리고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미국인들의 정서가 최종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개서한에는 정치인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이민 개혁을 통해 미국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자는 보통 미국인들의 정서를 정치권이 읽은 것이다. 오크라호마 상원의원 제임스 랭크포드와 메인 상원의원 앤저스 킹은, 북핵주의자로서, 국회 차원에서도 개혁 요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밖에도 미국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을 이민 정책에 실현시켜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진행될 이번 운동에서 북핵주의 진영은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예정이다.

1. 북핵주의 리더들은 4개월간의 난민 동결과 입국자 제한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2. 미국 북핵주의자들이 동 운동을 풀뿌리 민주주의로 미 전역에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3. 지구촌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의 종교적 난민 허용에 최선을 다한다.

결론으로, 이번 공개서한은 미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치적인 야심이나 책략이 아닌 하나님께서 트럼프 행정부에 지혜를 주셔서 미국이 앞으로 가야 할 바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는 이슬람 국가의 크리스천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어,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2018년 세계 최대 위기는 “기상 이변”

(1면에서 계속)

WEF 보고서는 ‘환경 문제가 생존에 필수적인 인프라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푸에르토리코를 초토화한 허리케인 마리아라고 지적했다. 또 2016년엔 기상이변으로 약 2400만명이 이재민이 됐다(세계적 난민 중 4분의 3이 넘었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칠레, 포르투갈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포르투갈에선 산불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기온 상승과 폭염은 식량 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 세계 식량의 4분의 3 이상이 12가지 작물과 5종의 가축에서 나온다. 세계의 식량 시스템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폭염과 가뭄, 홍수가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자인

미국과 중국의 수확을 망쳐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기아와 고난’을 가져올 확률이 10년마다 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사기·절도 등 기술에 기반한 문제도 향후 10년 동안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30가지 글로벌 리스크 중 톱10에 들었다. 그 외

비자발적인 대규모 이주, 사람의 활동이 가져오는 환경 재난, 테러 공격, 불법 무역, 주요 경제권에서 주력 등 자산의 극단적인 가격 상승도 중대한 리스크를 제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물·식량 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생태계 파괴, 전염병 확산은 피해가 큰 리스크로 꼽혔지만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톱10 리스크엔 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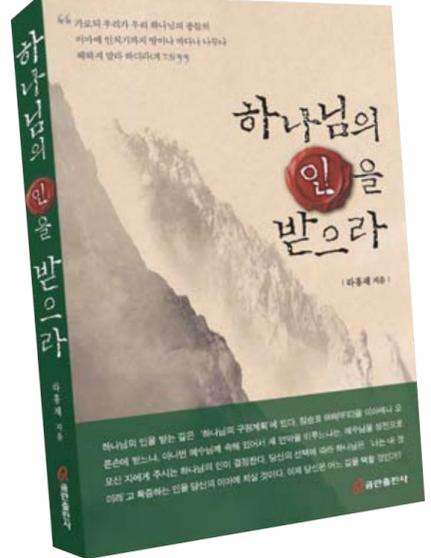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 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 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 하나님의 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죄가 문앞에 었드려

죄를 지을 때, 항상 죄 지을 동기가 이미 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본다. 계획 없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죄가 문앞에 었드려 있다고 했다. 죄라는 것이, 항상 죄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를 행할 기회를 만나면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존재들이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 한 일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험한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 주님께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은혜가 삶을 살게 한다. 그러나 그런 은혜들이 너무나 깊고 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죄 지을 생각이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완벽하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넘어질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언제나 깨어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직언하는 것이다.

최근 잘못된 종말론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정이나 누어지게 된 목회자의 소식을 들었다. 그럴 분이 아니어서 많이 놀라면서도,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아들이 동생을 사모하고 겁탈하게 된다. 형제간의 음란의 일들이 일어났다. 다윗이 압논의 잘못된 것을 징계하지 않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압살롬이 압논을 죽인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3년 도피생활 후에 결국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빼어 든다. 욕심으로 밤만 밟세 바 사건은 점점 확전이 되어 마침내 풍가루 같은 집안의 위기를 보게 되고, 마침내 다윗은 생명의 보전을 위해 죽음의 위기 속에 피난을 가게 된다. 죄는 사단의 좋은 포식감이 되어, 다윗의 인생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위기의 문제들을 들추어낸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윗이 마지막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정면승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다윗의 정서상 자신이 아들하고 전쟁을 하기에는 스스로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된다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왜 내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 사람 혹은 저 아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도 그를 폭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의

속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이 일을 주목하게 된 것은 예전 에 '밀양'이라는 영화와 겹치는 부분 때문이다. 영화 밀양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주려고 면회를 갔더니,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환한 얼굴로 오히려 피해자를 위로하자 충격에 주저앉은 장면이다. 피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신에게서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랑과 용서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이다. 마음의 생각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함에 있어, 모든 언행심사가 죄를 향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사단 마귀는 조금의 틈만 보여도 이를 헤집고 들어와 점령공세를 하는 것이다.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세상,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은 죄를 범하는 존재이므로

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인간을 잊지 않고 심판해오셨고, 인류의 마지막에는 대심판을 예고해 두셨다. 그러나 그가 심판을 넘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되심은 그 심판의 죄 값을 당신에게서 찾으셨기 때문이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나 검찰 공무원의 간증영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값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세상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비판의 폭 들어맞는 것대이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지 않은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엄격한 회개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로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겹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죄 용서에 대한 무한한 감사, 이와 함께 이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수용할 수 있는 한결같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은혜와 책임

-죄를 짓는 인생, 용서의 하나님, 수용하지 못하는 세상

말이나 충격이 상당하였다. 그동안 그분에게서 배운 많은 학생들과 수많은 영혼들은 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아련하고 쓴 마음이 들었다.

굳이 흠이라면, 지나칠 정도의 열정의 탓이었을까? 열정 없는 자기 보신을 위함보다는 실수가 있어도 열정이 낫지 않은가? 미국과 한국, 세계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2세대를 양육하는데 온갖 마음을 다 집중했던 그의 마음과 삶은 무엇이란 말인가? 참으로 마귀 사단의 행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삶을 약하게 몰아감을 적시하게 된다.

죄에 대한 예외없음

다윗은 훌륭한 왕이다.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종을 해하지 않겠다고,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우는 것임을 본다. 그러나 거룩한 목자와 같은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다. 밧세바와의 범죄와 이로 인한 살인의 죄들을 통해 너무나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 구별 없는 사단의 공격이다. 그는 밧세바와 함께 낳은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 압논이라는

위대함이다.

죄의 드러남과 용서

최근 한국의 고위직에 있던 검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을 하였다. 간증자체를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과거에 그에게서 성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한 이가 보기에 그것은 너무나 가증스럽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피해자인 여 검사가 마침내 이것을 사회의 공적 시스템 속에 드러냄으로서 사회적 이슈제가(Me too:나도 당했다)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폐쇄적인 형태의 검찰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벨상 후보로 지명되던 문인이 속한 문학계와 대기업들, 여러 공적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운동이 되었다.

이런바 '미투' 운동은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웨인스틴이 수 십년간 저질렀던 성폭력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소셜네트워킹(SNS) 운동이다. 수치심 때문에 혹은 직접적 피해를 우려해 숨겨왔던 성희롱·성추행·성폭행 경험을 공개하려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질서 속에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금번에 촉발된 일들로 인해 계

용서와 관용과 은혜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그 용서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심자간의 은혜와 자신이 져야 될 세상에서의 책임의 범위를 함께 가지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참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치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서 유괴살인범이 오히려 자신은 종교에 귀의하여 신의 용서를 받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며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여주인공을 다독거리는 그 말들은 세상이 보기에 는 충격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인 자기가 용서하기 전에 신이 먼저 용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 세상은 권선징악과 보편상식에 근거한 응징과 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피해자의 마음에 합하여지지 못할 때, 마침내 신에게까지 그 영역을 넓혀 손가락질하게 된다.

세상과 소통하는 책임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의 하나님이신가? 무한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무조건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해 오셨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

은혜에 젖어사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수용

간증이 잘못된가? 아니다. 은혜의 고백이 잘못된가? 아니다. 그러나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은혜에 젖어사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용서 이후에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죄의 열매에 대해 그저 '나의 책임입니다' 고백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후에 나타나는 많은 괴롭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입을 닫는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바라보며 수용하는 것을 본다.

미투운동을 바라보며, 나는 용서 받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합당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히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세상이기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혹여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마치 다윗이 용서받은 자신이지만 그에게 나타난 일들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다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진실로 억울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Includes a photo of Pastor Lee Jung-hyun and a large question mark graphic.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인이지요, 아니면 의인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죄 투성이인데 그래서 죄인인 것 같은데,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질문에 답변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칭의(justification)라고 하는데 그것은 법정용어입니다. 마귀인 검사는 우리들을 송사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심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았 습니다. 심자가에서 죄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테렐레스타이-다 이루 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법정에서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 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official)는 의인입니다. 그것은 마치 미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

사는 우리가 미국시민권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5년이 지나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과하여 시민권을 받으면 법적으로 미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아직도 된장찌개와 같은 한국음식을 먹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를 따라 사는 한국인이지만 외국을 여행하면 분명히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특히 한국을 나가면 입국 수속대에 설 때 우리는 미국인이기에 반드시 외국인 라인에 서야 합니다. 나는 한국인인데 라고 생각 하여 외국인 라인에 서면 입국심사대의 사람이 저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법적으로 미국인인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도 삶에서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죄인이면 그 신분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의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복이란 것은 Happiness라는 단어보다 Blessing이란 단어를 씁니다. 영어의 Blessing이란 단어는 Bleed 즉 "피를 흘리다"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지난날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외치며 그 행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찬송가에도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옹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시 말하지만 속죄함 받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당신은 복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1993년 체결된 오슬로 평화협정이 존재 기로에 섰다. 평화협정의 관에 대못을 박은 것과 다름없다.

트럼프 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측에 어떤 것도 양보할 이유가 없어졌다. 미국은 이전에도 여러 번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중동의 양극화된 정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 가능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2002년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들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우디와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현재 이란에 맞서 사실상 이스라엘과 동맹 전선을 구축했다. 그러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화해할 또 다른 이유마저 사라졌다.

미국은 사우디의 예멘 전쟁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동의 최대 테러지원국이 이란이라고 사우디와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지구 화약고, 중동은 여전히 불안하다

(2면에서 계속) 3. 칼리프 제국은 사라지겠지만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살아 남는다

2014년이 IS의 전성기였다면 2015년은 IS의 칼리프 제국이 망각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한 해였다. IS는 전성기에 이라크 영토의 40%를 점령했다. 지난해 초 그 비율은 10%로 줄었다. 또 IS

는 시리아의 점령지 중 70%를 잃었음 뿐 아니라 점령한 모든 주요 도시를 다시 빼앗겼다. 그들이 세우려던 칼리프 제국이 끝장났다는 뜻이다.

그러나 IS 운동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일부 IS 전사는 투쟁을 포기하고 현지 사회에 융합되거나 귀국을 선택했다. 그러나 현지 주민이 복수를 원하고 외국 정부가 극도로 경계하면서 그들은 상당한

반발에 직면했다. 나머지 IS 대원에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 지도부를 포함해 이라크 출신 IS전사 중 상당수는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IS에 합류했다. 따라서 그들은 앞으로 계속 시아파 정부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이 미군에 의해 무너진 뒤 그곳의 탈레반도 그랬다.

둘째, IS 전사 출신들은 조직의 지원이 없든 없든 전 세계를 무대로 공격을 계속할 수 있다. 우리 세

계엔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고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IS는 이제 근거지를 잃어 더는 정교한 선전전을 수행할 수 없다. 또 위험 부담이 크면서도 효과적이지 못한 이념의 매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힘을 잃게 마련이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제의한 이-팔 '최후의 합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예루살렘

교회의 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상반된 이미지를 전달해준다. 하나는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는 연약한 모습이다. 교회의 출발과 함께 거칠고 어두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소중한 생명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성도들은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교회가 그들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와 반대로, 초대교회는 매우 강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로마 황제들의 무시무시한 탄압이 대표적이다. 정치적인 실리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동기가 되어, 대단한 조지력을 발휘하며 수백 년간 주님의 교회를 역눌렀다. 그러나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았다. 영적인 힘을 키워갔다.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들은 더욱 강해졌다. 초대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힘을 지녀야 할까? 필요하다면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인 곳이다. 통일성을 위하여 모두를 제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제력이 필요하다. 교회는 성경을 기초로 한 진리와 규범을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서 이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통 교리를 대적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있다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에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지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힘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451년, 칼케돈에서 모였던 공의회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결정되었다.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두고 혼란스런 주장들이 등장하자,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을 매듭지었던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칼케돈 신조가 작성되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시며, 이 두 가지 본성이 조금도 섞이거나 그 특성이 사라지지 않은 채 그 안에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

이 역사적인 회의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 결정되었다. 칼케돈 공의회는 교부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동시에 중세교회를 시작하는 모임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몇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장악하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 이들에게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체제가 반영되어, 일종의 집단 정치 체제로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381년에 모였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모였을 때, 교회는 로마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안디옥 교구,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구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교구를 안디옥 교구로부터 독립시켰다. 이로써 교회는 모두 5개의 교구로 나뉘게 되었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5인의 감독에

게는 대단한 힘을 안겨 주었다.

힘의 균형

힘의 균형이란 차원에서 엄밀하게 살펴볼 때, 중세교회가 시작되면서 각 교구 사이의 힘의 대립이 생겨났음을 추측할 수 있다. 352년에 처음 교회 공의회가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장본인으로서, 이단의 출현과 함께 혼돈에 빠져있던 교회의 연합과 평화를 위하여 공의회를 소집

부상되는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교회가 지닌 힘의 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하여,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다른 동방 교회에 속한 교구들에 비하여 우월함을 인정받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로마제국의 수도가 로마로부터 동방교회로 옮겨간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로마 교회의 총대주교가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

의식하고 그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부담이 따랐던 것이다.

로마 교회의 힘

중세교회는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역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세교회의 힘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는, 로마가톨릭 교회를 염두에 두게 된다. 이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로마 교회는 예상하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하면서 힘을 키워갔고, 동방 교회는 이와 상반되는 모습을 지니게 되

540-604)가 있다. 그는 로마 출신으로, 경건한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났다. 로마 시장이었던 부친이 사망한 뒤 많은 상속을 받았으나, 대부분 자선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도원을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고, 자신도 수도사의 삶을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레고리 1세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실로 그는 삶 속에서 금욕과 고행을 실천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에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는 등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다.

특히 예배 규범을 작성하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예배를 활성화 시키려 하였다. 전통적인 단선율의 성가인 그레고리 성가(Gregorian Chant)라는 무반주의 종교 음악 형식을 도입하고 발전시킴으로, 유럽 교회 음악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실로 그레고리 1세는 ‘하나님을 중들을 섬기는 종’이란 칭호를 받고도 남을만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런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눈부신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 1세는 초대교회의 감독제로부터 중세교회의 매우 엄격한 교황제로 전환시킨 중심인물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476년 서로마가 망하게 되자, 그는 황제를 겸임하면서 교회와 정치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힘을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그레고리 1세가 첫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중세 교회의 문을 여는 장본인이 되었다. 훗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개혁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 성경으로부터 멀리 떠난 교황 중심 교회의 기본적인 골격이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로마가톨릭교회의 힘은 로마 수도의 이전이란 커다란 역사적 변혁이 불러온 영향이 지대하였지만, 사실 로마 교회의 교황 제도의 형성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초대교회에는 감독과 장로의 구분이 없었으나, 이단과 박해로 인하여 교회 안에 일종의 계급이 형성되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각 교구로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로의 직분이 사라지고, 성직자들 사이에는 위와 아래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일종의 계급 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비록 그레고리 1세에 의하여 중세시대의 교황제도가 시작됐지만, 이전에도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감독의 우위권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되어왔다. 이 모든 배경에는 남을 장악하는 목적의 강한 힘을 지니려 하는 인간의 욕심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 본성을 안에 감추어져 있느냐 아니면 노골적으로 드러내느냐에 불과하다.

중세교회는 힘을 추구하며 힘차게 달려 나갔다. 그 힘이 축적되고 강해질수록 성경이 가르치는 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결국 1000년이 지나 중세교회가 마칠 즈음에는, 이미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지 오래된 상태였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4)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교회 통일성 위한 기본적 통제력 필요... 영적 권위로 적극 치리해야 긍정적 평가 받은 그레고리 1세가 첫 교황되면서 암흑시대 문 열어

한 것이다.

과연 이 모임에서, 로마의 감독이 안디옥 교구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역사가들마다 해석이 다르다. 그러나 로마 교구는 로마제국의 수도가 있던 곳에 위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우월감을

던 황제가 같은 도시에 있었기에, 아무리 로마 교회의 감독들을 대표하는 총대주교라 할지라도 제한된 자유를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 황제의 등을 업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으나, 한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이 막강한 힘을 지닌 로마 제국의 수장과 절대로 힘을 겨룰

었다.

로마 교회가 교황의 직접적인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좀 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중세교회 1000년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

칼케돈공의회는 교부시대 마지막인 동시에 중세교회 시작하는 모임 콘스탄티노플 교구 위치 크게 부상... 힘의 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포기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한편,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아직 미약하였지만, 안디옥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나름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콘스탄티노플 교구의 위치가 크게 부상되었다. 이 모든 것은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자신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전한 뒤로부터 생겨난 일이다. 이 도시의 공식 명칭은 ‘새로운 로마’였다. 이주하기 전에는 5개의 교구 중에서 유일하게 로마 교회만 서방교회에 속해있었으며 나머지는 동방교회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동방교회가 속한 지역으로 수도가 옮겨지는 상황에서 동방 교회에 속한 감독들의 위치 역시 떨어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당시 교회가 황제의 지배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수도가 동방교회가 속한 곳으로 이전한 뒤, 로마 시민이나 로마 교회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총대주교에게 행정관의 직책을 수여함으로써, 그에게 서유럽을 다스리는 정치적 힘과 교회를 장악하는 힘이 생겨났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황제의 간섭 아래서 항상 눈치를 살피야 했던 상황이 중단되었다.

그 반면에 동방교회에서는 로마 교회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콘스탄티노플 교구를 포함하여 동방교회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항상 로마의 황제들

도 있다. 중세교회는 이미 신앙의 기초가 세워진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그들은 어거스틴을 포함한 훌륭한 교부들로부터 전해 받은 정통 신학의 전통을 누리고 있었다.

단지 그들의 관심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부터 전혀 떨어져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출발한 것이다. 한 마디로, 로마 교회는 힘을 갖기 원했다.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추구했던 힘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세상 위에서 군림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었다.

그 중심에는 그레고리 1세(Gregory I,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그루터기 신자

올해 워싱턴포스트지에 그려진 운명의 날 시계는 12시 2분전으로 맞춰졌다고 합니다. 운명의 날 시계는 핵전쟁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지난 1947년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고안한 것으로 핵과학자 회보를 통해 매년 발표됩니다.

지난해에는 12시2분30초 전이었는데, 올해는 12시 2분전으로 발표한 것은 1953년 미국과 소련이 냉전시대에 핵전쟁의 공포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12시2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트루먼 대통령이 수소폭탄 개발을 선언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시록

9장 15절에는 전 세계 인구의 1/3을 죽이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앙이 계시록 8장, 9장에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시록 7장에는 전 세계를 휩쓰는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흥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엔 “그 중에 심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찌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나무는 베임을 당하면 끝내버리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

는 생명력이 강해서 베임 당하고, 불이나 뿔 등치가 다 타버려도 그 살아남은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순이 돋고 줄기가 나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루터기의 위력입니다.

요셉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을 이긴 자, 불시험을 이긴 교회를 하나님은 그루터기 신앙으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요셉과 다윗처럼 역경을 이긴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기독교100년 역사에 1천만명이 넘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뒤안길에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영양분으로 삼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일제 36년 핍박의 시기에도, 공산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루터기 역할을 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국 개신교회가 지금 1억이 넘고 2020년엔 2억에 육박할 만큼 부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외국 선교사들 때문이 아닙니다. 1949년 모택동 공산정권이 중국을 장악하여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당시 70만명이던 크리스천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며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려 했던 그루터기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세상이 돌고 줄기가 뻗으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체제 하에서 지하교회를 이끌던 폴스 목사님이 비밀경찰에 적발되어 7년간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너의 추종자들이 누구 누구냐?” 추궁하였습디나다 그는 모진 고문에도 끝까지 성도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의 몸에는 온통 고문의 흉터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거룩한 그루터기 신자입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맡

아 시무하시던 조셉톤 목사님을 루마니아 공산당원들이 잡아서 고문을 해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 루마니아 정부는 국제 여론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하고 추방했습니다. 조셉톤 목사님은 미국으로 오셔서 여러 신학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당신의 신학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나의 신앙 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순교 신앙입니다.” 훗날 동구권이 무너지고 개방되기 시작할 때 한 신문 기자가 조셉톤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동구권이 개방되는 것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자 의아한 얼굴로 기자가 되 물었습니다.

“아니 공산권이 무너지고 당신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조셉톤 목사님이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운 것은 동구권이 개방이 되어 나의 조국에 돌아갔을 때,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안일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루터기 신자입니다. 역경을 극복한 신앙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입니다. 고난 속에 연단되어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5장 3-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베임을 당하고 불로 태워져 그루터기만 남은 고통을 당했어도, 온갖 시련과 역을 함과 역경을 견뎌내고 새로운 움을 틔게 하고 거대한 나무로 키워 이전보다 더욱 영광스런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거룩한 그루터기 신자,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구별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자”

OC교협, 기관장 단체장 초청 2018 조찬기도회

오렌지카운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는 OC지역 기관장, 단체장 초청 2018 조찬기도회를 10일 오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서 회장은 “OC교협 주최로 조찬기도회를 갖게 되서 기쁘다”며 “조찬기도회를 통해 교회, 각 단체, 한국,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크리스천들과 지도자들이 영혼과 지역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 도와 OC교협 부회장 박재만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영수 장로가 대표기도 했으며 이관우 장로(두나미교회)가 성경봉독을, 아이노스선교 찬양팀이 특송 했다. 이어 이서 목사가 ‘부흥을 위한 기도’(창18:16-33)라는 제목으로



OC교협주최 2018 기관장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설교했으며,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축도했다.

분회 부회장 조현영 목사 사회로 열린 2부 순서는 최석호 거주하원의원, 김종대 OC한인회 회장, 영길연방하원의원 후보, 한기홍 목사가 축사했으며 기도회로 이어졌다.

기도회는 박용일 목사가 ‘미국과 한국의 영적회복과 한반도 평화’, GM선교회 김정환 목사가 ‘OC교회, 선교단체, 신학교’, 이태중 목사(조

이풀교회)가 ‘OC지역 기관단체의 발전’, 샘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장)가 ‘이민가정과 차세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이서 목사가 임원소개 및 후원이사회를 소개했으며 올 한해 OC교협 행사를 소개했다.

3부는 윤우경 집사(미디어위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씨니 박 부에나 팍 1지구 시의원 후보2018년 첫 후원의 밤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씨니박 시의원 후보 후원의 밤 부에나팍 1지구...젊은 세대 많은 참여 당부

씨니박(한국명 박영선) 부에나팍 1지구 시의원 후보, 2018년 첫 후원의 밤이 지난 1월 29일 가든 그 로브 동보성에서 약 30명의 오렌지

카운티 리더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씨니박 후보는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가 너무 중요하다. 젊은 시의원 후보인 만큼 선거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와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행사의 특별 게스트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에 출마하는 조 커 후보와 전 오렌지카운티 소방관협회 정치 고문이었다 토니 바벨로 씨가 참석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는 영길전 주하원의원이 연방하원으로 후보로 출마하기 전 최근까지 뛰던 자리다.

(기사제공: 씨니박 시의원후보캠프)



더바이블랜드 사업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비즈포스트 그룹, 더바이블랜드 사업설명회

더바이블랜드 사업설명회가 8일 오후 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더바이블랜드는 비즈포스트 그룹(회장 존 김)이 LA동쪽 필랜 인

근에 125에이커 규모의 대형테마파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비즈포스트는 더바이블랜드 건립에 대해 부지가 마련된 상태이며

(박준호 기자)

이에 대한 에스코를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바이블랜드의 설계도 및 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준공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5월이나 6월경이 돼야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바이블랜드는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실재화 해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테마파크로 조성이 되며 방문객들은 더바이블랜드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을 통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커뮤니티센터와 숙박시설도 들어서게 돼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성경테마파크로 건립될 예정이다.



강위덕 작곡가 '순교자' 미서부지역 첫 연주회가 지퍼홀에서 열렸다

강위덕 작곡가 '순교자' 미서부지역 첫 연주회 새천사합창단 & 빛소리 여성합창단 출연

<4면에서 계속>

한국 선수가 출발점에 서 있을 때도, 경기 도중에도, 처음부터 앞서 나가지 못하는데도 전혀 안타깝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시지요? 한국이 그 경기에서 금메달 땀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지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보게 되니까, '지면 어떻게 하나? 꼭 금메달을 따야 할 텐데' 라는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결과를 이미 알고 보니까 여유롭고 편안하게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집니다. 아브라함이 여유롭게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미 눈치 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 채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동요됨 없이 흔들림 없이 묵묵히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강위덕 작곡가 '순교자' 미서부 지역 첫 연주회가 '순교자'라는 주제로 지난 1월 20일 오후 7시 지퍼홀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새천사합창단과 빛소리 여성합창단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였다.

연주회는 소프라노 박은희가 '여호와 나의 피난처', 'The Lord is My Shepherd'를, 소프라노 김종숙, 엘토 홍지혜, 테너 오위영, 베이스 장윤일이 4중창으로, 빛소리여성합창단이 '바위섬', '순교자', 새천사합창단이 '오 할렐루야', '만민들이 찬양하라'를 불렀으며 새천사합창단과 빛소리여성합창단이 연합으로 '할렐루야', '시온성'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mission4jsc@gmail.com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 & East Asia \$190, Europe \$190, N. America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fields including name, address, phone, and email.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동부교계 기사판



'열린 유아원'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운영하는 '열린 유아원'이 3월 8일(목)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문의: (646)327-6438 이명옥 전도사

뉴욕리폼드신학교 봄학기 학생 모집

뉴욕리폼드신학교(원)(NYRBS, 학장 이상열 박사)가 2018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문의: (917)862-0523, (718)961-2171

반주자 청빙

롱아일랜드 웨스트버리에 위치한 롱아일랜드선교회(담임 이상원 목사)에서 반주자를 찾고 있다.

▲문의: landbetween3@gmail.com

새 찬양 축제 콘서트 & 콘서트

새 찬양 축제가 오는 4월 7일 링컨센터에서 열린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201)783-5924 송재현 목사, 이메일: inpfny@gmail.com

운동주 73주기 추모공연

눈오는지도(Snowing Map, 대표 한은준)이 주최하는 운동주 73주기 추모공연이 2월 18일(주) 오후 6시 카페 '뉴욕의 아침'에서 열린다.

▲문의: 201-835-8692

회원가입서류 추가 논의·텍스D 승인보고

김형일 선교사, '유대인 선교' 강의

제46회기 뉴욕목사회 1차 임실행위 및 세미나

제 46회기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지난 2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뉴욕대교회(담임 김전 목사)에서 제 1차 임실행위위원회와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실행위원회와 세미나를 함께 하는 일은 이례적이지만 실행위 시간을 앞당기고 10시 40분부터 세미나를 진행했다.

실행위 안건은 △회원가입서류 추가 승인건과 △연방정부 면세증명서 승인완료 보고건으로 신입회원이 목사회 회원으로 가입할 때 신학교졸업증명서(M. Div)를 첨부하지는 않음의 결정을 보고했다.

실행위원들은 의도는 대부분 찬성했으나 서류상으로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2차 실행위로 넘겼다.

연방정부 면세증명서는 45회기(회장 김상태 목사)가 추진해오던



뉴욕목사회 1차 임실행위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회장 문석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것으로 김상태 목사가 경과발표를 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박태규 목사 인도로 기도 김경숙 목사(수석협동총무), 설교 문석호 목사, 광고 김주동 목사(서기), 축도 김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으로"(엡6:23-24)라는

제목의 짧은 설교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는 것"이라며 "목회자 자신도 얼마나 평안함이 있는가, 진정한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 믿음 속에

덕을 세우는 목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미나 강사 김형일 선교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와 신학적 접근 및 유대교의 특징에 대해 강의했다.

김 선교사는 히브리대학 유학생으로 시작한 선교사 시절의 간증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대인 선교를 소개했다.

김형일 선교사는 세미나를 마치면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뉴욕과 뉴저지 등 미동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는 4백만 유대인 전도에 작은 불꽃이라도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위해 3월 5일(월)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제 1차 기도회 및 공개세미나를 갖는다. 동 탐방에는 총 34명이 최종 신청을 마쳤다.

(유원정 기자)

"신사도운동과 IHOP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뉴저지교협, 한선희 목사 초청 이단대책 세미나

뉴저지교협(회장 윤명호 목사)이 2월 7일부터 이틀간 소망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이단대책 세미나를 열었다.

뉴저지 교협은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이단대책 책자 1편도 발행했으며, 앞으로 2, 3편은 물론 영어권을 위한 영어로 된 책자 발간 계획을 밝혔다.

첫날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홍인석 목사의 사회로 이단분과 위원장 조재원 목사가 기도하고 직전 회장 김중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중국 목사는 "뉴저지교협 2대 회장이 이단에 빠져 죽은 사건은 충격적이며 치욕적"이라며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김중국 목사는 여호수아 11:21-23을 본문으로 "내가 이집도면 하나님과 말씀 앞에 굳게 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라며 100% 믿음의 교훈을 전하고, 2018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축원했다.

이어서 세미나 강사 한선희 목사(세계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소장)

는 2016년 뉴욕에서 이단대책 세미나 강사로 선 바 있다.

한선희 목사는 첫날 오전에는 이단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인의 종교심성, 이단의 특성, 이단분별의 기준, 이단의 변성 이유, 이단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 회개자에 대한 자세 등에 대해 강연했다.

오후에는 '한국 이단의 계보'와 '이단들의 오아시스 미국'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둘째 날에는 인터넷과 신사도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두 주제는 예민한 주제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뉴저지에서 논란이 된 벤자민 목사 관련 질문도 있었다.

한선희 목사는 "신사도 운동과 IHOP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한선희 목사는 "이단대책 세미나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저지 지역에서 이단대책 세미나는 지난 2011년 이후 7년만이다. 미동부 지역은 2007년 이후 뉴욕과 뉴저지, 필라가 미동부 이단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연합으로 활동해왔으나 2013년 후 중단된 상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신년감사예배 및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신년감사예배 및 건국사 15차 세미나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주최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뉴욕지회가 지난 10일 오전 10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신년 감사예배 및 건국사 제 15차 세미나를 가졌다.

1부 감사예배는 박태규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호 장로, 설교 방지각 목사, 헌금기도 전희수 목사, 축도 윤세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복 받은 자의 모습"(시1: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거룩의 행통, 위로의 행통, 지혜의 행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씀을 선포했다.

2부 하례식은 안창의 목사 사회로 국민례 후, 회장 인사말과 축사에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 뉴욕교협경증회장 한재홍 목사, 축가는 테너 김영환 전도사가 불렀다.

회장 안창의 목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인사했다.

3부 세미나는 뉴욕지회 사무총장 현영갑 목사를 강사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3대 업적: 자유민주주의 선택, 토지개혁, 한미 방위상호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동 기념사업회는 이승만 박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교육시키고 민족정신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매월 건국사 세미나와 강연회, 이승만 박사 탄신 기념행사, 이승만 박사 서거 추모행사, 바른역사와 안보관계 포럼, 우남야카카데미 운영, 우남장학재단, 기금마련 골프대회 등의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기독교 이단 세미나 | 뉴저지침례교협 주최
이단, 무엇이 다른가?
행사: 2월 25일(일) 10:00-11:30am
장소: 소망교회 147 Grand Ave., Paterson, NJ 0765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빛과소금교회, 주비교회, 퀸즈장로교회, 퀸즈한인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한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미주성결교회 LA동지방회 회장에 이재광 목사

제39회 지방회, 교회 전도지 및 홈페이지 제작 결의

미주성결교회 LA동지방회(지방회장 안신기 목사) 제 39회 지방회가 지난 4일 오후 7시 연약한인교회(담임 이재광 목사)에서 개최됐다.

본 회 부회장 이재광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 예배는 서기 양명선 목사의 기도가 있은 후, 디모데후서 4장 4-10절을 인도자가 봉독한 뒤, 본회 회장 안신기 목사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을 전했다.

이후 전회장 주신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거행됐으며, 증경회장 김광수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어 열린 지방회는 이재광 목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다.

이날 안건으로 나온 3개 지방 교회 조정의 건은 지방회 간의 갈등 요소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있음

로 철회하기로 했으며, △미자립교회를 위한 전도지 보급 및 제작을 하는 일 △지방회 소속 각 교회 홈페이지 제작하는 일들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로 결의했다.

다음은 제39회 LA동지방회 임원 명단이다.

△회장: 이재광 목사(라스베가스 연약한인교회) △부회장: 봉영찬 목사(하와이우리교회), 정명철 장로(로고스교회) △서기: 이용은 목사(텐버수정교회) △부서기: 권순광 목사(위드힘교회) △회계: 이정석 목사(면류관교회).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 LA동지방회)



미주성결교회 LA동지방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특별중보기도회에서 목사장로 중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우리 민족 모두가 주님 만나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특별중보기도회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KVMCF SC, 회장 김희창 목사)는 2월 10일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육사 출신 문대룡 목사(예비역대령 항공, MCU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속 세계 북핵 위기 중에 한미동맹 강화와 나라를 구하는 특별 중보기도회를 가졌다.

1부는 최학량 목사(예비역중령)의 사회로 해병대 출신 단 김 목사의 기도, 서기 최만규 육군 미서부 지부장의 성경봉독, 남가주목사로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 육사 35기인 문대룡 목사의 '간혹한 여인'(요8:1-11)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문대룡 목사는 “죄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있는 우리 민족 모두가 주님을 만나야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악가 임화자 전도사의 찬양이 있었다.

2부에서는 조국상황 특별중보기도회 부회장 최정학 장로의 인도로 김영구 목사, 홍순건 목사, 표세홍 목사가 대한민국과 평창올림픽 등 조국을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본회는 매월 모임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선교적 모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의 모임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3월에는 '복귀'라는 주제로 특별기도회를 가진다.

▲연락처: (213)268-9367 김희창 목사

(기사제공: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기독교인의 협정기예배 및 보수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최경송 박사 ‘해독요법’ 강의

기독교인의 협정기예배 및 보수교육

복음과 의료기술의 두 날개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 비전 공동체인 미주기독교인의 사협회(회장 정종오 박사)는 지난 2월 11일 오후 4시부터 9시30분까지 예수마음교회에서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2월 정례예배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아프리카 브룬디 한센인(문동병) 의료선교사인 신인환 목사의 선교사역 보고에 이어 선교헌금(1000달러)을 전달했다.

이어 보수교육 강사로 최경송 한의학 박사가 ‘해독요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최 박사는 21세기 대체의학과 해독요법의 권위자와 한국의 숨은 명 의 50인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날 참석한 한의사들의 큰 갈채를 받았다.

한편 협회 측은 참석자 모두에게 구정선물로 준비한 솜사시 기구를 1개씩 선물했다.

(기사제공: 기독교인의 사협회)



한미연합회 “LA 세입자 권리 찾기” 워크샵이 성황리에 열렸다

한미연합회 “LA 세입자 권리찾기” 워크샵

50여 한인 참석자들에 세입자 정보 전달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가 지난 10일 세입자들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워크샵을 성황리에 마쳤다.

약 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Inquilinos Unidos(세입자 연합)과 Eviction Defense Network(퇴거방지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세입자로서의 의무,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렌트 컨트롤, 퇴거 절차와 퇴거 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 등에 대한 정보를 나

눴다.

발표 후 Q&A를 통해 한인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점에 대한 대답을 들었다.

발표자들은 아파트 관계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 주변에 알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과 연합하거나 자신들에게 도움을 청해달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회는 건물 소유주가 언 어 장벽을 빌미로 이민자들을 이용

서부교계 게시판

West

한인소망교회 담임목사 청빙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매릴랜드 하이트츠 소재 한인소망교회(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는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40-50세 개혁보수 신학대학원(M.Div)을 마친 5년 이상 목회 경력과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영주권자 이상인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졸업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목사안수 증명서, △자기소개서(신앙고백, 목회경력, 목회비전, 성장배경, 가족소개서), △설교(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최근 것 CD 나 동영상), △추천서 두통(추천자가 직접 우송).

▲ 문의: (636)751-6027, koreanhopestl@gmail.com

무료 세금 보고 강좌

유학생 및 신학생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강좌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플러튼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 내 Grace Library GL2 강의실에서 23일(금) 오후 1-3시에 개최한다. 강사는 교회행정, IT, 비영리단체 및 비즈니스선교 담당 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인 제임스 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본 무료 강의는 모든 유학생들과 특히 신학생들에게 유익한 세금관련 정보와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를 위한 유익하고 실질적인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문의: (714)393-4595

대통령봉사상 시상식 및 설명회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대통령봉사상 시상식 및 설명회를 24일(토) 오전 10시에 Buena Park Ehlers Event Center Heritage Hall(8152 S. Knott Ave)에서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8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 청장년 및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봉사활동이 있는지, 또 어떠한 절차로 봉사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 문의: (714)552-6333, hyosarangus@gmail.com

CRC 코암노회 주최 목회자 세미나

CRC교단 코암노회(노회장 임지석 목사)는 봄 노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27일(화) 주성선교회(담임 손태정 목사)에서 갖는다. 이날 세미나는 '성경해석에 대한 개혁주의적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의 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강사는 심재승 교수(도르트대학).

▲ 문의: (562)896-0691

커플관계진단 세미나

기독교적 가정을 담당하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FBM)이 커플관계진단 및 상담 워크샵을 17일(토) 오전 9시30분 바이올라대학교(이스트 109호)에서 갖는다. 강사로는 금병달 목사, 금정진 사모, 서니송 박사다. 세미나에서는 혼전상담가이드, 커플상담, 멘토링 등을 다루게 된다.

▲ 문의: (714)287-2458

남가주사랑의교회 새생명 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2018 새생명축제를 '새로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23일(금)부터 25일(주)까지 갖는다. 강사는 최선규 집사(전 KBS 아나운서).

▲ 문의: (714)772-7777

나침반교회 신년회복사경회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신년회복사경회가 '착한 청지기로 살라'라는 주제로 22일(금)과 23일(토) 양일간 개최된다. 강사는 이재학 목사(국제디모데성경연구원 대표)이며, 일정은 22일(금) 오후 7시45분, 23일(토) 오전 6시30분, 오후 7시.

▲ 문의: (562)691-0691

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회는 개발자들과 렌트비 인상으로 인해 한인 타운 거주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거나 밖으로

내쫓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인 커뮤니티 거주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현수막 | 천막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프로모션 상품

디자인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롤업배너

벽걸이 포스터

현수막

미디어벽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의 창 (95)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동계 올림픽을 통해 본 선교적 기대

제 23회 평창 동계 올림픽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다. 금번 대회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열렸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4대 열강의 이해타산 속에서 남북한이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매년 2, 3월에 있는 키리졸브(Key Resolve)라는 한·미간 연례 합동군사 훈련을 미국의 동의하에 연기함으로써 남북 간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우리는 30년 전 1988년 서울에서 열렸던 하계 올림픽을 기억한다. 그 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때 한국은 홈그라운드 이점을 활용하여 참석 국가 160개국 중 종합 4위를 하였다. 이 대회는 체육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한류가 동남아와 남미, 나아가 이슬람권까지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 정부는 자신감을 얻어 그 이듬해인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를 공표하였다. 이로서 5대양 6대주로 한인 선교사들이 북음의 나팔수로 나가게 된 것이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이목을 집중하는 글로벌 축제이다. 이는 단지 체육대회로만 끝나지 않고 인류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따라서 우리는 본 대회를 통해 올림픽의 이상이 한반도와 세계에 실현되도록 성원해야 하며 선교적 모멘텀(momentum)이 되기를 기대한다.

1.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와 그 정신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Frédy, Baron de Coubertin 1863년 1월 1일-1937년 9월 2일)은 프랑스의 교육자이자 근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이다. 그는 파리에서 태어났으며 보불 전쟁이 일어날 무렵 교육 혁신의 뜻을 품고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하였다. 그는 이때 스포츠가 청소년의 인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즈음 독일 고고학자에 의한 올림픽이 유적의 발굴이 성공하자 근대 올림픽 대회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착상한 쿠베르

탱은 여러 나라 청년들을 올림픽으로 묶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1892년 자기 생각을 널리 발표하였고, 18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조직하여 초대 위원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제 1회 올림픽 대회가 1896년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개최된 것이다.

쿠베르탱이 주장한 올림픽즘(올림픽 정신)이란 "스포츠를 통해서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유치경쟁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다. 3번째 도전에서 개최권을 탄 대한민국은 이로서 2018년 동계 올림픽을 평창에서 성대하게 진행하고 있다. 다음 대회는 2022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된다.

3.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개관 2018년 평창 올림픽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총 17일간이다. 본 대회 조직위원회는 "총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임원단까지 합치면 총 6,500명이다.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15개 전 종목, 144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 포함

공헌하는 것"이다. 이 정신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다.

2. 동계 올림픽 역사

동계 올림픽(Winter Olympic Games)은 4년마다 열리는 겨울 종합 스포츠 대회이다. 이는 보통 윤년이 아닌 짝수 해 2월에 열린다. 첫 번째 동계 올림픽은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1924년에 열렸다. 그 이전에는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경기가 하계 올림픽에 포함되었다. 올림픽은 1924년부터, 세계 2차 대전에 의해 중단되기 전인 1940년까지 4년마다 열렸다. 이후, 중단된 두 대회는 1948년 동계 올림픽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동계, 하계 올림픽은 1992년까지는 같은 해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두 대회를 각각 다른 해에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동계 올림픽은 IOC의 결정 하에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대회 때부터 월드컵 축구 대회와 같은 해에 열리게 되었다.

동계 올림픽은 많은 나라들이 개최해왔다. 미국은 4번으로 그 횟수가 가장 많고, 프랑스는 3번, 이탈리아, 일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2번씩 개최해왔다. 지난 2014년 대회는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다. 한국은

5개 종목에 22명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되었다. 또한 남북 선수단이 개최식 때 한반도가 그려진 단일기를 들고 공동으로 입장하였다.

이번 대회는 총 102개(실상 70개, 빙상 32개) 종목으로 겨울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100개를 넘겼다. 이회별 조직위원장은 "이번 평창 올림픽은 참가국과 선수단, 메달 등 모든 면에서 지구촌 최대 규모의 겨울스포츠 축제"라고 했다.

본 대회의 공식 슬로건은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다. 슬로건 첫 글자인 P와 C는 대회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대문자를 사용하여 'PyeongChang(평창)'을 연관시키기도 하며, People. Connected(사람과 사람에 잇는 올림픽), Possibility. Connected(가능성을 열어가는 올림픽), Peace. Connected(평화를 잇는 올림픽), Place. Connected(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올림픽)라는 뜻을 지향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번 올림픽은 문화, 환경, 경제, ICT, 평화라는 입체적 성격을 띤 올림픽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평창 올림픽에 즈음한 남북 회담

이번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지난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그때 결정된 사항은 "첫째, 남과 북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셋째,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로서 북한에서 선수단, 응원단, 예술 공연단, 기자단, 대표단 등 000명이 내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수적으로도 그렇거니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은 그 중량감이 이전 대표자들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한 사람은 명목상 국가수반 격이요 또 한 사람은 김정은 국무 위원장에게 직언할 수 있는 유일한 실세이다. 이에 한국 대통령과 핵심 리더십은 최고의 환대를 했다. 짧은 2박3일이지만 다른 일정을 뒤로 한 채 공식 회담에 이어 4번이나 식사를 같이 했고 남북 단일팀 경기 응원과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도 함께 보았다. 이제 그들은 돌아갔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피차간에 정 있는 교감과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90세의 노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저들은 한 핏줄인 우리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5. 평창을 평화 올림픽으로 정착해야 할 과제

대한민국 주체 올림픽에 참여하는 북한 대표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굵직 많은 않다. 한마디로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보수적 시각에서는 저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손을 잡아서 안 된다는 논리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논평에서 "북한의 평화 제스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누그러뜨리고 한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볼 때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적 시각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설사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고 대결구도로 나온다 할지라도 압박과 함께 한쪽으로 화평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쥐도 도망갈 구멍을 마련하고 쫓으라는 말이 있다. 만일 금번 올림픽에 즈음하여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휴전선에서 작은 국지전이라도 발발시켰다면 과연 올림픽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 불안해서 참석 수도 지금과 달랐을 뿐만 아

과 임원들 그리고 주최하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작은 사건 사고도 전체흐름을 훼손할 수 있다. 올림픽은 단순한 운동경기의 의미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이나 민족의 자존심을 기르는 중요한 축제가기에 서로 간에 매우 예민하다.

둘째, 다시 남북화해와 교류의 시발점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번 올림픽은 민족화해와 통일로 가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 만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민족 통일을 향한 시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셋째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시대 사탄은 거짓교리와 세속적인 대중매체들이 젊은 청소년들을 휘감고 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서 세상을 선도하고 선교한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민족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앞이 잘 안 보인다 해도 인내하며 실천 같은 물길이라도 있으면 타고 올라가야 한다. 언젠가는 그것이 강물이 되어 북한 땅을 적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소명을 받들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맺음 말

1989년 11월 9일 철의 장막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는 동구라파와 소비에트연방의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게 되는 서막이었다. 그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다음 해였다. 이를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만 말할 수 있겠는가? 3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서 또 다시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이제 우리 차례이다.

지구상의 유일한 이념적 장막인 휴전선이 빨리 철거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머리 위에 화로 불을 이고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같은 동포끼리 총을 겨누고 서 있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비극중의 비극이다. 이에 평화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민족이 남북으로, 세계로, 미래로 융비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된 사람들과 지구촌 손님을 환대해야 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人事)을 다하고(盡), 천명(天命)을 기다린다(待)는 자세가 필요하다. 맑은 기록으로, 간절함은 가능성으로, 도전은 환호로, 열정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무엇이 새로운 지평을 여는가?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 그렇게 한다.

jrson007@hanmail.net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8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8.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8)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8(Fri)-21(Mon), 2018
2) Place: Old Westbury, NY USA
-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Psalm 110:1-7
(2) NT Exegesis Text: Rom. 4:17-25
(3) Thesis Topic: Evaluate the New Perspective of Tom Wright in the view of the Reformed Theology.
(4) Sermon Text: Luke 16:19-31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hnJho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8.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PC (Retake Exam fee: \$100)
-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8.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8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2nd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5, 2018).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8-21, 2018 Old Westbury, New York) through Rev. John Jho.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Submission Address**
Rev. John E. Jho / Address: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U.S.A.
Cell: (7028) 296-9193, E-mail: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fcpcny@g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E. Jho (702) 296-9193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유재일 목사 서기: 최중현 목사 고시부 부장: 조성훈 목사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

선교사 칼럼

안녕하세요? 김현일 선교사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이스라엘 사역과 미국 유대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후 전 세계로 흩어져 1900여년을 갖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였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명이 죽임을 당하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스라엘 국가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행렬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 640만명 중 약 1만7천명에서 이민령 정도가, 그리고 미국의 유대인 600만명 중 4-5만명 정도가 예수님을 메시야로 영접한 유대인 크리스천 즉 Messianic Jewish입니다.

저희 가정은 2000년 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아 16년간을 유대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부족한 저희 가정을 통해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주영이를 통해 많은 장애우들 가정을 만나게 해 주셨고 비록 주영이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밝게 자라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북부 약고에 위치한 주영이 학교 근처로 집을 옮기면서 약고에 교회개척을 위해 준비하시던 가이코현 목사님과 함께 2005년 아셀의 추수교회를 저희 가정에서 개척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에는 학생비자로 들어갔지만 3년 후에 학생비자가 어렵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2004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특파원 비자를 미주복음방송국을 통해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정부 특파원 신분증을 받게 해주셔서 만나게 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딸 주영이 이후에 둘째 주

은이가 지난 2012년에 이스라엘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저희 가정에 큰 위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은혜 안에 진행되던 가운데, 지난 2015년 이스라엘 비자국에서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특파원으로 너무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기에 더 이상 특파원 비자를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이민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6년 1월 정들었던 이스라엘 땅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을 떠나 사역을



김현일 선교사 (SEED인터내셔널 소속, 미주복음방송국 국무원 출입기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편집자주] 뉴욕목사회 세미나(기사 10면 참조)에서 강사로 있던 김현일 선교사의 '유대인 선교'에 대한 기고를 게재한다.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니 앞으로 미국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전도사역을 해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 미국에서도 저희의 약함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만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북부 뉴저지의 Jewish Community Center에서 주영이가 수영하며 히브리어를 하는 것을 본 어떤 R 할머니가 발달장애를 가진 동양아가 자기보다 히브리어를 더 잘하는 것이 신기하고 너무나 밝게 자랐다고 하며 호기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복음을 나누었으며 지금은 저희 가정의 유대인 어머니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미국 유대인의 중요한 단체인 AIPAC 후원이사이며 할머니의 손자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 목회자의 신분보다는 특파원 신분으로 만날 수 있도록 미주복음방송국 동부지역 특파원으로 임명되게 하였고 작년 7월 미국 국무부에서 이스라엘

특파원 신분으로 있었던 것을 인정해 주어 기적으로 국무부 출입기자증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달전 뉴욕 브루클린에서 전도했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브루클린의 유대종교인 거주지역으로 노방전도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낙담가운데 있던 중 인근에 이스라엘 식당이 있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일제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식당은 유대교의 정결한 음식을 파는 코헨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음식을 주문

했다니 유대인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16년을 살다가 왔다고 하니 옆에 있던 유대인 한명이 저에게 다가와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하며 본인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J로서 미국 국제 변호사이며 미국 안보위원회 국제법 자문변호사라며 명함을 주었습니다. 이분과 대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유대인 몇 명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유대교와 불교가 비슷한 것 같으며 제 종교를 물어보았고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았고 저는 생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유대교 여자 한명이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끝까지 나누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J는 복음에 대해 너무 놀라워하며 계속 교제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60대 여자 한 명이 와서 본인은 제 뒷자리에 앉아서 저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며 다시 꼭 만나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자 분은 이스라엘 국회 소속으로 UN 본부에 파견 나온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J와 S씨를 예비해두신 유대인 영혼이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나누었던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예비해두신 영혼들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hyunilkim1108@gmail.com

기도/칼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박훈승 목사 (캐나다서부장로교회)

2018년도에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첫 진입한다. 감사한 일이다. 이제 세계 7대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는 것이다. 보릿고개를 넘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 개개인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잘 살아야 한다. 선진국들을 보면 국민보다 나라가 부자이다. 국민의 생활수준도 높지만, 저개발국가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돕는다. 하지만 후진국들은 나라를 거지인데, 일부 사람들은 선진국 국민보다 잘 산다. 밥 굶는 절대 빈곤층이 많은데, 부자들은 왕족처럼 부를 누린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하다.

교회도 선진국과 같은 교회와 후진국과 같은 교회가 있는 것 같다. 선진국형 교회는 복음전파와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교회이다. 성도들은 나누면서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을 감당한다. 이런 교회가 부요한 교회이다. 후진국형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궁핍한데 성도들은 부요하다. 교회는 예산이 부족해 선교도 하지 못하

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해 허덕이는데 성도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한다. 교회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안녕에만 바쁘다. 성경적인 부의 개념은 단지 경제적인 수입에 있지 않고, 사랑의 지출에 있다. 부의 기준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있다. 수입이 많아도,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지독한 가난뱅이다. 그러나 비록 수입이 적을 지라도,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나누는데 힘을 쓴다면 진정한 부자이다. 아무리 돈이 넘쳐들러도 선한 일에 인색하면 가난한 자요, 가난해도 사랑이 풍성하면 부자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전파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후진국형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교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20:35).

이메일: bible66@gmail.com

“도시 외곽지역 교회 핍박...예배 중단 강요당해”

중국교회 성도, 반중인권단체에 편지

지난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이 위기에 처했다. 소식(본지 2월 10일자 14면 참조)을 전했다. 선교사들도 안타깝지만 무엇보다 핍박의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걱정된다.

관영 삼자(三自) 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기독교 가정교회를 전면 폐쇄하고, 예배를 봉쇄하는 등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중국 허난(河南)성 시화(西華)현 샤오야오 마을에 사는 ‘펑’이란 여성은 얼마 전 반중(反中) 인권단체 차이나이드에 편지를 보내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펑은 “지금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있다.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도록 강요당했다”며 “학생들은 중국 공산당을 믿고 따르라고 배우고 있고, 이들이 어떤 종교를 갖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펑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관리들이 집집마다 들어다쳐 가정교회로 운영된 흔적이 있는지, 가족 구성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성경 구절이 적힌 족자나 기독교 관련 그림, 성자가를 소유하는 것도 금지됐다. 펑은 “관리들은 어떤 여성이 문 양쪽에 걸어놓았던, 성경 구절이 적힌 족자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버렸다”고도 했다.

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기도해 달라.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 달라. 긴급하게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타깝다. 하지만 절망스럽지만은 않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A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중국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핍박은 결코 교회를 죽이지 못한다’.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핍박은 오히려 성장 촉진제 역할을 했다. 초대교회가 대표적이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제국의 핍박을 피해 지하로 들어가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다. 이때 성경이 완성됐고, 교회 신학과 체제가 확립됐다.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로 꼽힌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5:10)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의 말이 아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고난에 맞선 이들을 높이시겠다는 약속이다. 펑을 비롯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길 기도한다.

(미션라이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ilee, Wungo, Buxton, Benelux, Boston, Salt, and others.

세계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공모전-장려상(4)



이정남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출석)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를 읽고

미국에 이민 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맛은 추수 감사절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빌려보던 미국교회와 인근 멕시코 교회와 함께 감사절 예배를 같이 드렸다. 그때 예배를 주관하신 미국교회 목사님은 각 교회에서 한 사람씩 그해에 받은 감사한 일을 얘기하라고 했다. 한국교회에서는 내가 그때 나가던 직장에서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이민 목사의 감사절 메시지는 감사는 자신이 겪은 특수한 은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범사의 일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설교였다. 다소 진부한 느낌마저 드는 이 설교는 소외되고 조급하고 늘 뒤에 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온 나의 40년 이민 생활의 큰 빛이었음을 고백한다.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책에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감사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이민 초기 들었던 설교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나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나에게 얘기해왔고 다짐해왔지만 돌아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짜증내고 분노하고 욕하며 산 시간이 훨씬 더 많다. 간혹 잘된 일이 있으면 내가 툭툭하고 잘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하는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잘되게 해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다. 나의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일은 없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고국을 떠나 새로운 땅 미국에 와 추위와 질병으로 절반 가까이 생명을 잃고 슬프고 고달픈 상황에서도 “항해 중 폭풍을 만나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선하지 않은 것” 등 별로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 일곱 가지 감사 조건을 찾아낸 ‘필그림 하더스’들의 얘기를 이민을 살아가는 나에게 귀한 귀감이 다. 군 생활에 적응 못해 휴가 중 무덤이 탈하여 육군교도소에 가게 되고 스스로에게 좌절하여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군 교도소 재소자가 출소하면서 자신이 재소 중에 ‘감사 나눔 콘서트’를 통해서 받은 경험은 감동적이다. “잘못한 자식과의 20분 짧은 면회를 위해 6시간을 오고 가는 부모님께 감사!”, “따뜻한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고 건강함에 감사!” 하는 이 재소자의 감사는 나에게 충격적이다. 나는 ‘이 사람보다 감사할 일이 나의 일상생활 중에 얼마나 많이나?’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찾으라는 오래전 감사절에서 들은 미국 목사의 설교를 다시 생각나게 했다. 나의 일상생활은 이것보다 더 크게 감사할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는 기쁨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이 책을 읽은 가장 큰 수확이다.

이 책은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생명으로 인도 하는 고난”, “사랑의 열매 나눔”, 그리고 “마음을 적시는 찬양”의 5부로 나누어 있고,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 독자도 쉬이 다가갈 수 있는 54개의 주옥같은 실화가 소개되어 있다. 실화 뒤에는 “마음의 묵상”이라는 장이 마련되어 그 실화를 나에게 적용해보며 나의 감사를 찾아보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미 소개한 육군 교도소 재소자의 얘기 외에도,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고백한 비결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조용히 3일을 기다린다”는 “마음의 묵상”은 늘 새로이 다져오는 문제를 돌파하는 비결을 터득하게 해 주며 나에게 새로운 안도감과 기쁨을 준다.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과연 행복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자문하기도 한다. 그런 나에게 이 책은 이 땅에 사는 65억의 사람 중에서 내가 처해 위치를 알게 해주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준다. “당신이 행복해야 할 큰 이유는 지금 당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지구 마을에 살고 계신 당신,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맛을 깊이 음미하며 하루 하루, 순간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며, 더 많은 것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언젠가 당신은 스스로도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나의 평범한 나의 일상에 있음을 깨달으며 무기력한 이민의 삶에 새 활력을 얻게 된다.

이 책은, 시인이며 찬송가 작사자인 조지 마틴슨이 실명의 위기에 처하며 그의 사랑하던 연인마저 떠났을 때 남긴 다음의 시를 소개한다.

“나의 하나님, 그 동안 나에게 있는 가시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장미꽃에 대하여는 수천 번

감사했지만, 가시들에 대하여는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십자가로 인하여 장차 받을 아름다운 상급은 바라보았으나 내게 있는 십자가가 현재의 나의 영광이 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나에게 있는 가시들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가시의 길을 통과하였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소서. 나의 눈물이 나의 영롱한 무지개를 만들었음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함을 배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가시들도 이제 나의 영광이요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이 역설을 받아들여야 나는 정말로 윤택하고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이 시의 저자처럼 나도 보다 승화된 삶을 살아가고 다짐해본다.

이 책에서 나는 다음의 진리를 배운다.

“우리의 감사가 일평생 감사, 영원한 감사로 나아가는 이유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붙들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곧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무엇을 감사하며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터득했으며 감사와 긍정의 DNA가 내 몸속에 생성되어감을 느낀다. 이 책을 읽고서, 지루하고 무기력한 매일 매일의 삶이 이 책에서 바라는 대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살아 있는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물로 받은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세어 보면서 앞으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더 많음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한다.

leejung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구원할 자가 없었고!(삼하22:42-43)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평생을 살면서 체험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다 제거해주시고 수많은 실족할 위험에서 건져주시며 실족치 않게 하시 는 하나님... 수많은 전쟁을 치루면서도 끝까지 싸울 힘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위험하다 싶으면 적군이 뒤로 돌아있어서 오히려 한 방에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

리시고... 그래서 다윗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들도, 마지막에 가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티끌같이 진흙같이 부서트리시고 밟아 해쳐버리십니다.

화 부르짖어도 대답치 아니하셨나이다(삼하22:42-43)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하다가 죽게 되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한순간에 손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오면 언제 어디서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지 부르짖으면 그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일단 구출해놓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부르짖어도 대답치 않으십니다. 원수들은 아주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수 건지시고 보존하시(삼하22:44)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동족들과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형제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통일 국가의 왕이 돼 다스리기 전에 동족들과 계속해서 원수가 될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의 장군 아브넬이 이시보셋을 얻고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는 중에 다윗왕에게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다가 다윗의 신복 요압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겸손하고 사울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후손들도 끝까지 잘 돌봐줌으로써 동족들과의 모든 다툼을 잘 해결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베냐민지파 시므이와 세바가 저주하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족과의 다툼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삼하22:44)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즉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는 모든 것을 지도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만 그냥 잘되고 잘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책임지는

고 세상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케 되리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로 으뜸이 돼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을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금 저희가 내 중생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삼하22:45-46)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고 순순히 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윗의 명성만 듣고도 다 항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방사람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순복하고 스스로 떨며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잃어버린 영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시려는 지상명령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써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명성을 듣고 순복하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순복시키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삼하22:47)

이제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간증하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제까지 자신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 수 있었고 큰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나의 명성을 듣고 곧 순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생존하시니”라는 히브리어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라고 하는 감탄에 감탄을 더하며 환호의 소리를 지르는 장면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든든한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영등포구 독막동 520 (150-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0-999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재동 33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송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팩스(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팩스(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2, 29(잠실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신촌동 49-45 www.shinchn.org</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안암동 50-1 www.anamjil.or.kr</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 경남 창원시 양곡동 415 www.yanggok.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Tel: (82)8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0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인/터/뷰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

죽음준비교육...다음세대 연결되는 사역되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주제로 지난 2007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한 인커뮤니티의 유일한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죽음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 소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고 또 다른 1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은 10년간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왔으며 소망소사이어티 출범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했다.

“아무래도 죽음준비교육은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다들 피하고 싶은 이야기니까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목격하게 되었어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아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소망소사이어티 출범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유분자 이사장은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이러한 어려움은 사역을 하는데 있어 자양분이 됐다고 밝혔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젊은 나이도 아닌 70세가 다 됐는데 뭐하는 것이냐고, 이제 죽으면 자식들이 장례를 치러 줄 텐데 죽음, 죽음 하나 그 러더군요.”

그런 반대 속에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는 유분자 이사장은 반대가 관심으로 바뀔 때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4년까지는 후원도 거의 없었고 함께 사역을 일구어 나가야 하는 분들 역시 매우 적었습니다. 마치 사전을 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4년이 지나 5년째로 접어들면서 하나 둘씩 후원자가 생기게 되었고 현재 135명이 평생후원자로 저의 사역을 도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마음을 나눴던 분들의 반대와 외면이었다며, 9년째 반대를 하며 속을 태웠던 분도 계셨다고 웃으며 말했다.

“제가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간호사협회, 한인가정상담소, 글로벌어린이재단, 가정법률상담소 등 비영리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나눠줬던 분들이 반대와 외면으로 막고싶어 많았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좌절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비바람이 불고 소나

는 한국인은 3-4명뿐이었지만 10주년을 맞이한 현재 시신기증 약정자가 1,170여건에 달하고 있다.

“UCI에 시신기증 약정자중 50% 이상이 한인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죽음준비 프로그램인 소망유언서 작성도 1만 2,800여건에 달하고 있고요. 긴급연락처 카드 작성 670여건

소망소사이어티는 지회개설을 위한 작업으로 죽음준비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한인사회에 노년층이 늘어나고 죽음준비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는데 비해 교육하고 계몽할 인력은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을 양성해 보충해 나가고 이들을 중심으로 타 지역, 타 주에 지회들을 개설해 죽음준비교육을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망동산 건립을 통해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계획이다. 어느 한곳이고 조용한 지역에 부지를 마련해 소망동산을 만들고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노년의 삶을 함께 하는 공동체 구상이다.

“소망소사이어티의 지난 10년을 바라보며 응원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넉넉하게 내어준 사랑과 신뢰에 보답

지회개설 작업으로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시작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캠페인 전개, 소망동산 꿈꾸

기가 오고 눈보라 같았던 싸움함들이 하나로 엮어져 소망소사이어티 사역의 자양분이 되어 사역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반대하던 분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사역을 지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소망소사이어티는 웰빙(Well-Being), 웰에이징(Well-Aging), 웰다잉(Well-Dying)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찾아가는 세미나로 죽음준비교육, 치매예방/웃음치료, 소망유언서 쓰기, 호스피스교육, 장기/시신기증 안내, 긴급연락처카드제작, 치매케어교실, 사별가족 모임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에 우물과 유치원을 짓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특히 UCI와 함께 하고 있는 시신기증안내는 2013년에

그리고 생명살리기 프로그램인 소망우물기증 315개, 소망유치원 건립 4개 등 열매가 풍성해서 감사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유 이사장은 소망 소사이어티의 다음 10년을 생각하며 소망의 미래에 대해 꿈을 꾸는데 차세대 리더십, 지회개설, 그리고 소망동산의 꿈 등 3가지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인생에서 하나하나 내려놓을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요. 올해 제 나이가 여든세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맡아온 역할들을 후진들에게 물려주는 작업을 시작할 생각이예요. 봉사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있는 젊은 세대를 찾아 이제까지 확보한 자원과 노하우를 수월하며 차세대 리더십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젊은 리더십 하에서 소망소사이어티가 활기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후원을 힘으로 소망 소사이어티는 더욱 모범적인 봉사단체로 도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는 지난 2017년 7월 제1기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에 이어 제2기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교육을 통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리더들을 배출하게 된다.

제2기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 일정은 오는 2월 22일(목)과 23일(금)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죽음준비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24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소망포럼을 갖게 된다.

장소는 소망소사이어티 및 관련기관(5836 Corporate Ave, #110, Cypress, CA)이다.

▲연락처: (562)977-4580 (박준호 기자)

기독교 경영 전략

Christian Business Strategy in the Marketplace (1)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을 시작하여

오늘날의 사회에서 기업활동을 모든 사회의 흐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1주일의 주어진 삶의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기업의 활동에 사용한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시각과 비즈니스 선교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기업경영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기독교 경영은 새로운 것이 아

서의 정의라는 주제별로 어떠한 성경적 원리가 각 분야별 경영전략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네 번째는 선교와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선교의 용어 정의, 선교의 구분, 선교사의 사역적, 재정적 책무, 비즈니스 선교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영학적 관점과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비즈니스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적 원리 적용하는 기독교 경영은 새로운 것 아니야

니다. 그러나 무관심하거나 우리가 잃어버린 요소들이다. 기독교 경영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세속적인 경영 철학과 성경적인 경영 철학을 구분하고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다룰 부분은 5가지로 영역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경영의 성경적 원리이다. 경영에 대한 이해와 경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와 핵심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성경적인 경영원리에 대한 적용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이 되는 7단계 및 변화하는 세계 속의 성경적 절대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기독교 경영전략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업 경영 목적과 기업활동에서의 영성, 기업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전략 경영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를 통해서 기독교 전략 경영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세 번째는 분야별 성경적 경영 전략으로 각 경영 분야에서 적용되는 실제적인 기독교 경영전략으로 마케팅전략, 광고 전략, 회계 전략, 조직행동, 인적자원, 정보시스템과 운용, 보험, 투자, 기업법, 시장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선교 전략은 다양한 비즈니스 선교전략 중에서 의료를 통한 선교, 비 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를 통한 선교, 인터넷을 통한 선교, 교육 사업을 통한 선교,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 전략 등과 함께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사업계획서 전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강의의 통해서 성경적 경영 원리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선교의 중요성을 독자들이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겠다’는 선교 사역이 확대되도록 기독교 경영과 비즈니스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강의의 내용은 미국 한인 신학교 최초로 Grace Mission University에서 개설된 MAICS(Master of Art in Inter Cultural Studies)-BAM(Business As Mission) Emphasis 과정의 Business Professional Studies 중 한 과목인 Strategic Business Planning 과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메일: dr.jameskoo@yahoo.com

제4회 소망포럼

소망 소사이어티 SOMANG SOCIETY

Well Being - Well Aging - Well Dying

Have you decided? 주제: 여러분, 선택 하셨습니까?

장례와 상속; 가족을 위해 더 미루지 마세요 Very important Choices for your family and friends.

일시 2018년 2월 24 일(토) 10시 30분 ~ 1시 30분 (간단한 점심식사 제공)

장소 베델 한인 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비전센터)

주최 소망 소사이어티 Somang Society (562)977.4580 www.Somangsociety.org

- 장기기증 Organ Donation Seung Lee Manager - Donation Development of One Legacy
- 시신기증 Body Donation Mark Brooks Director - Wilked Body Program of UCI
- 매장과 화장 Burial & Cremation Angel Honda Advance Funeral Planner - O'Conner Mortuary
- 유산상속 및 기증 Living Trust & Donation 박영선 변호사 - 상속 전문 변호사 Attorney at Law
- 사회 Master of Ceremony 최경철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Joseph Choi, Chaplain Manager of Volunteer & Bereavement Service CareChoices Hospices

제2기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죽음준비 전문가 양성과 지회 설립을 위해 제2회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소망소사이어티와 카이론 토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컨텐츠로 강의하며 사람들이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 준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 일시: 2018년 2월 22일 ~ 23일(목~금) 09:00am ~ 5:00pm - 죽음준비 교육 2018년 2월 24일(토) 10:30am ~ 1:30pm - 소망포럼 참석
- 장소: 소망소사이어티 및 관련기관 5836 Corporate Ave., #110 Cypress, CA 90630
- 등록비: \$250
- 등록마감: 2018년 2월 20일(화)
- 등록 및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society.org
- 3일간 점심식사 제공
-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 제공

소망 소사이어티 SOMANG SOCIETY

5836 Corporate Ave. #110, Cypress, CA 90630 / (562)977-4580 www.somangsociety.org / somang@somangsociety.org

SPONSORED BY

